선업 실천 만이 '苦' 벗어나는 길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⑩ 〈반야심경1〉 – 행복으로 가는 길

한국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되는 불경은 〈반야심경〉일 것이다.

모든 법회에서 사용됨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일상에서 통용되는 단어들 가운데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空卽是色)' 쯤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다. 〈반야심경〉이 팔만대장경 속에서 이토록 우리들의 사랑받으며 기억되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위해 꿈을 갖는다.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점차 부처님이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깨달음이라는 행복을 찾는다. 깨닫고 난 뒤에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깨침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길을 찾아야 한다. 부처님은 행복한 삶을 찾는 이들이 길을 잃지 않고 바로 가는 지혜의 가르침을 반야부 경전 600부를 통해 세세하게 일러주셨다. 600부, 엄청난 양이다. 그래서 축약을 시작하고 줄이면서 가장 핵심부분을 270자 안에 녹여놓으니 바로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이다. 줄여서 〈반야심경〉이라 부른다. '마하摩訶' 말할 수없이 커다란, '반야(般若)' 는 부처님의 지혜, '바라밀다(波羅蜜多)' 는 향해가는 길, '심경(心經)' 은 심장과 같은 중요한 경이다. '커다란 부처님의 지혜를 향해가는 중요한 가르침' , 혹은 '무궁무진한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하여 행복해지는 방법' 이란 뜻이다. 반야와 이언이 공역한 것으로 〈한글대장경〉 206권, p579~580의 〈반야바라밀다심경〉은 기승전결이 뚜렷해서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반야심경〉의 본문 구성은 본래 4개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 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억해야 할 부분은 바로 첫 구절에 있다.

'관자재보살이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오온이 공함을 비춰봐 일체 고액에서 건너다.' -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개공 도일체고액(觀自在菩薩 行深般若波羅蜜多時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

관자재, 즉 관세음보살은 사바세계에서 사람들의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천수경에서도 준제찬, 준제진언을 통해서 중생의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리심을 발하고 마음의 평안과 삶의 지혜가 밝아져 공덕을 많이 쌓아 수승한 복으로 중생들 모두 불도를 이뤄지도록 이끌어 주는 분이다.

예전에 일본 쿄토의 33당간이란 곳에 갔더니 42수 관음보살 양 옆으로 천 분의 관세음이 서계신 것을 보고 감동했었다. 42수 관음의 변화수인 40개의 손은 한 손이 25명의 관세음역할을 하니 다 합쳐 천수천안관세음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손바닥에 눈 하나를 그려서 42수관음의 후광으로 그림을 그려 이해를 시키는데 33당간에서는 관음보살 천 분을 모두 조각해서 세워 놓았으니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관음의 가피가 내게 오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관자재는 세상 모든 중생들 앞에 모습을 자유자재로 드러내어 가피하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다. 이런 분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면서 오온, 즉 몸과 마음이 사실상 공(空), 변화함을 알아차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애착을 여의니 고통에서 벗어난 것이다. 흔히 오온(五蘊)을 다섯 가지 쌓임으로 해석하는데 편하게 색(色)은 육체로, 수상행식(受想行識)은 정신으로 보면 좋다. 육체와 정신은 한마디로 나(我)다.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존심, 명예, 사랑 등의 생각들이 마구 일어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냥 인연 따라 만난 것이니 인연따라 사라져간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인생은 무상(無常)하기 때문이다. 무상함은 변하는 것이니 어느 한 모습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린 시절 모습이 지금 내가 아닌 것처럼, 변화에 대응할 줄 아는 마음은 지난 시간에 연연해 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집착한다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집착하지 않는 순간 바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노자는 가장 큰 근심이 몸에 있으니 내게 몸과 마음이 없다면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했다고 한다. 또 부처님은 모든 세간에 충만한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업(業,행위)일 뿐이니 선업의 실천만이 괴로움을 벗어난다고 했다. (계속)

〈서울 반야사 주지〉

중생 제도 마음씀에 달려 있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⑩ 선지식이 해설하는 금강경 제 3분

諸菩薩摩訶薩 應如是降伏其心 所有一切衆生之類 若-卵生 若-胎生 若-濕生 若-化生 若-有色 若-無色 若-有想 若-無想 若-非有想非無想을 我皆令入無餘涅槃槃 而滅度之(금강경 제 3분의 내용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보살마하살이 응당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나니 이른바 세상에 있는 온갖 중생인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비무상을 내가 모두 제도하여 무여열반에 들도록 하리라 하라.)

如是滅度無量無數無邊衆生 實無衆生이 得滅度者(이와 같이 한량없고 가이없이 많은 중생을 다 제도하였다 하더라도 실로 제도 받은 중생이 없느니라.)

이러한 경전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밝아지는 방법 즉 금강경 실천법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여기에 실천하기는 더욱 더 불가능한 방법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우선 제도하여야 할 중생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 지구 상 인류만 하여도 60억명이다. 여기에 사람 말고도 닭이니 새 등 난생, 그리고 물고기 등 습생의 숫자까지 합치면 그 수효는 천문학적이 될 것이다. 또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에 귀신 등 다 포함하면 그 수가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그런 많은 수의 중생을 다 제도해서 무여열반에 들도록 하라는 것이다. 무여열반이라는 것은 부처님 경지이다.

말 잘듣는 자식을 교화시켜 부처님처럼 변화시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인데, 한량없고 끝도 없는 중생을 제도하여 부처님으로 만드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지혜가 밝은이 또는 깨친이 라면 이때 "그대가 부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해 놓고 난해하다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다 난해하다는 생각은 참이 아니고 착각인줄 알아라. 부처님께서 어찌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하셨겠는가? 내 지혜없음을 탓하면서 어렵다는 생각이 착각일 줄 알고 부지런히 부처님께 바친다면 올바른 지혜가 임하여서 명쾌한 해석 실천가능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 말씀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깨친이는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깨쳐 사람이나 사물의 겉만 보지 않고 이면의 모양을 보며, 또 이면을 보는 자신의 견해 역시 공함을 알고 사람과 사물의 실상을 정확히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깨친이는 아마도 금강경 제 3분을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배은망덕한 마음은 알로 까는 보를 받는다고, 태생은 남한테 의지하는 마음이다. 태로써 우리 부모하고 의지하고 있다가 탯줄을 끊고 출생을 하는데, 의지하는 마음이 태생의 보를 받는다. 그러면 이 난생을 닭이니 새니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배은망덕한 마음으로 한번 해석하고, 태생을 젖먹이 짐승이다 해석하지 말고 남한테 의지하는 마음으로 해석을 해보자.'

'我皆令入無餘涅槃 而滅度之' 는 '이런 모든 마음을 부처님 만들겠다고 하라' 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배반하는 마음, 또는 남을 의지하는 마음이 떠오르거든 그 마음을 '부처님' 하는 마음으로 바꾸라고 해석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처럼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분별심을 '부처님' 하는 마음으로 바꾼다면 그 마음속에서 분별심은 사라지고, 분별심이 있었던 자리에 부처님이 대신 들어서 분별심을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곧 밝은이가 실천 가능하도록 금강경을 해석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대들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들 중 가령 배반하는 마음, 배은망덕 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가지가지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모든 생각을 다 부처님께 바쳐라."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소소영영(昭昭靈靈)한 주인공 '이 뭣고'

마음(心)이란 곧 성품이며, 깨달음이며, 부처이다. 마음이란 형상과 방향과 장소가 없으므로 마침내 얻을 수 없는 것이며, 청정한 그대로 법계(法界)에 두루하여 가는 것도 오는것도 아니며, 본래 완성된 청정한 법신부처이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라고 알고 쓰고 있는 식심(識心)은 밖으로는 육진경계에 끌려가서 타향살이를 하고, 안으로는 끌어 당겨서 객진번뇌와 동거하며 생로병사의 중생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누구냐? 물음의 답은 마음이니, 말은 마음을 따라서 일어 나므로 마음은 이 말의 머리고, 생각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므로 마음은 생각의 머리다. 만법(萬法)이 다 마음으로부터 생기므로 마음은 만법의 머리이고, 실로 화두(話頭) '이 뭣고' 는 이 염두(念頭)이며, 생각 전에는 이 마음이다. 한마디로 한 생각도 생기기 이전에 화두(話頭)는 이루어 지는 것이다. 이는 모든 부처님과 중생이 다 꼭 같이 갖춰져 있으니, 만약 망상(妄想)과 집착(執着)만 여의면 그대로 부처이다.

'약인정좌일수유(若人靜坐一須臾) 승조항사칠보탑(勝造恒沙七寶塔) 보탑필경화위진(寶塔畢竟化爲塵) 일념정심성정각(一念淨心成正覺)' 이라는 말이 있다. 불교 수행의 근본목적은 내면의 마음을 밝히는 데 있기 때문에 밖으로 아무리 많은 탑을 쌓고 절을 짓는다 해도, 그것은 유형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필경 먼지 티끌로 돌아가지만, 참선(이뭣고)을 통해 본래 청정한 내 마음 자리와 하나가 되면 그것이 성불인 것이다.

그러나 중생은 어리석은 그 고통으로써 진리를 뒤로 한 채 한 생각 무명 때문에 애착고가 되어 본래 없는 죄업이 항상 있어서 윤회를 하고 있고, 중생은 음과 양으로 나뉘어져 흑백(黑白), 선악(善惡), 귀천(貴賤)이 있는데,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신령스럽고 뚜렷한 소소영영의 주인공인 시심마의 시(是)는 오직 홀로 짝이 없어 청청한 본래 그대로 이다.

"말은 마음을 따라서 일어 나므로 마음은 이 말의 머리고, 생각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므로 마음은 생각의 머리이다"

'천지불능장구재(天地不能長久在) 항차소생천지간(況且所生天地間) 당당불수음양자(堂堂不受陰陽者) 역겁다생자재신(歷劫多生自在身)' 라는 말도 음미해보자. 법신은 음양으로 나뉘지 않고 또한 인연을 따르지도 아니한다. 그러나 색신은 음양으로 된 것으로 생노병사의 고(苦)가 있고 무상한 것이고 천명을 따라야 하지만 참성품은 우주법계에 두루해 오고 감에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한 그대로 인 것이다.

심불급중생(心佛及衆生) 시삼무차별(是三無差別)이라 했다. 부처님이나 범부나 축생이나 미물에 이르기까지 차등 없이 이 천연물(天然物)을 사람마다 다 갖고 있지만 다만 인연에 따라 오고 가되, 오고 간 바가 없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찾는 최고 방법이 간화선 '이 뭣고' 이다. 이 법(法)을 알아서 항상 그놈을 찾으면 언제나 함께 하는 '이 뭣고' 이지만, 천자(天子)가 되고 왕이 되고 장군이 되어도 잠시 그 역할만 하다가 깜깜한 생사고해 속으로 흘러 들어갈 뿐이다.

〈법화경〉 사구게를 보면 제법종본래상자적멸상(諸法從本來常自寂滅相) 불자행도이래세득작불(佛子行道已來世得作佛)이란 말이 있다.

"모든 법은 본래부터 그대로 적멸의 모습이니 불자들이 이 이치를 깨달으면 그 순간 부처님"이라고 했다. 우리가 보는 세계가 눈으로 봐서 그렇지, 마음의 눈으로 보면 그대로가 부처이며, 모두가 진리라는 말씀이고, 본래 깨쳐 있는 부처임을 믿으면 중생이 부처라는 말씀이다. 다만 한 생각 무명(無明) 때문에 오온(五蘊)으로 잠시 이루어진 가아(假我)가 아상(我相)이 되어 꿈꾸지만, 그 망상 집착으로 이루어진 꿈을 깨면 그대로 부처인데, 그 꿈을 깨는 것이 수행이며, 그 참 수행이 바로 '이 뭣고' 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제12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8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교육장소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뜻을 같이할 종도스님을 모집합니다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요사채,산신각,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연 락 처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010-2813-8008
부 산 지 사 이 도 경	051)405-9402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512-5003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010-8642-7733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011-870-0021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010-9373-3778